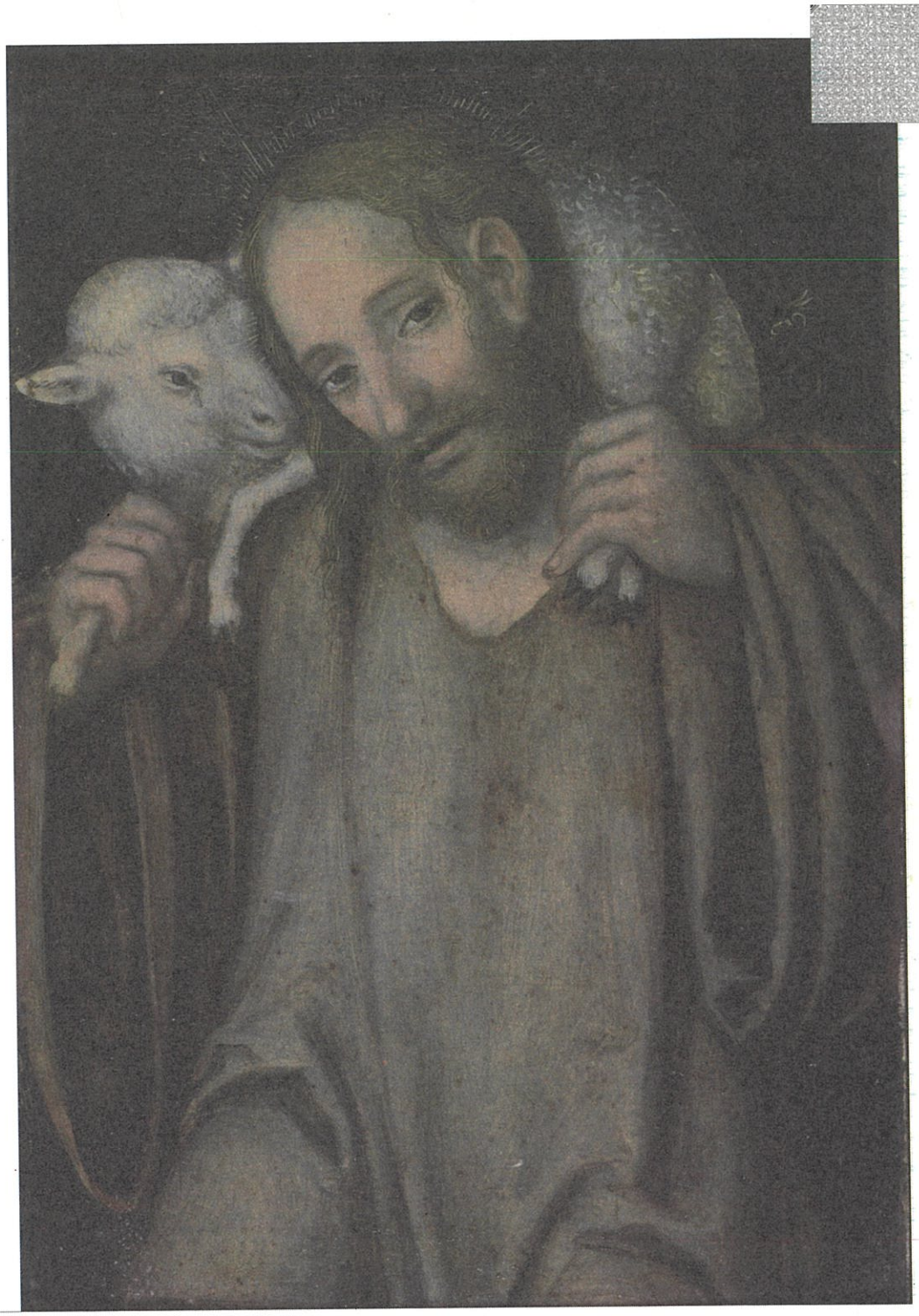
서울주보

제2557호
2025년 5월 11일(다해)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루카스 크라나흐(아들)
(Lucas Cranach der Jüngere, 1515-1586)
1540년경, 나무에 그림, 20.5x14.5cm
앙거박물관, 독일 에르푸르트

입 당 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3,14.43-52

화 답 송 | 시편 100(99),1-2.3.5(◎ 3ㄷ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 묵시 7,9.14ㄴ-17

복음환호송 |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 10,27-30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s://cc.catholic.or.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 tv 29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한 10,30)

전두병 요아킴 신부 | 여의도성모병원 행정부원장장

오늘은 '성소(聖召) 주일'입니다. 지난 1964년 부활 제3주일에 처음으로 성소 주일을 지낸 이래로, 가톨릭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매년 부활 제4주일마다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많은 신학교와 수도원들이 신자들에게 공동체를 개방하거나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가 왜 성소 주일을 지내는지 본래의 의미를 잊을 수 있습니다. 곧 성소란 인간이 만들어 내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이자 은총이므로, 가정을 비롯하여 본당·수도회·신학교 등 교회 공동체의 꾸준한 기도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성소자들이 더욱 깊이 하느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말씀을 보거나 듣고서도,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한 10,30)라는 말씀으로 하느님과 친밀한 일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늘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뜻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하느님의 일만을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느님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일치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미사 때 나에게 오시는 성체를 통해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또 내가 그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요한 15,4)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미사 때마다 실현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성체를 모시는 그 순간에만 그러한지, 아니면 일상생활 안에서도 그 일치가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본받고자 노력할수록 예수님과 일치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치를 도모하는 삶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화 해설

착한 목자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착한 목자는 초대교회 카타콤의 천장화부터 지난달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십자가 목걸이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도상입니다. 눈물 자국이 난 어린양을 둘러멘 검박한 옷차림의 예수님께서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청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말씀의 이삭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경자 안나 | 소설가

요즘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길음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강론을 듣는 내내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신부님께선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당신의 판단이 옳은가? 가장 온전한 판단인가?'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어려울 때면 예수님께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결정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저울로 옳고 그름, 진정과 그름을 밝혀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결심했습니다. 사노라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생각도 결정하고 행동도 결정하고 관계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대부분 저의 욕심들입니다. 그 욕심을 움직이는 것은 '꾀'입니다.

그런데 꾀로 무엇을 결정하고 나면, 일단 무슨 이익이 생긴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늘 창피합니다. 꾀로 결정한 것들이 다 저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를 망친 게 대부분입니다.

삶은 속여지거나 감춰지는 것이 없으므로 저의 불결한 정신이 느껴져서 한없는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수치심도 바로보기가 싫어서 수치심을 몰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변명을 만들어 내면 낼수록 몸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찬 듯 무겁고 정신이 병든 느낌에 괴롭습니다. 꾀를 부리지 말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결정을 내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글을 쓰는 일에도 꾀가 활동을 합니다. 읽는 이를 속여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보이게끔 치장합니다. 본질보다는 미사여구로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고 사실을 잘 헤아려 확인하지 않은 글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부끄러워 책으로 묶지 못하는 소설이 여러 편입니다. 독자들에게 재미를 준다는 핑계로 화사하게 화장을 시킨 글들이라는 걸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꽤 많이 살았습니다. 지구를 떠날 날들이 저 앞에 아롱아롱 보이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시 신부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컷 묵상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루카 9,48)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희년을 맞아 서울주보는 희망을 주제로 다양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 희망의 순례자들'**은 희망을 품고 걸어간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희망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성경 속
희망의 순례자들

하바쿡 예언자의 희망

김영선 루시아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남유다 왕국 말기에 예언 활동을 하였던 하바쿡 예언자 역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군대가 유다 왕국을 제압하던 과정을 목격한 불운한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여느 예언자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예언자가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느님께 항의하고 따져 물었던 특이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폭력과 불의, 재난과 부정 앞에서 제발 무엇인가를 하시라고 하느님께 호소합니다. 법은 스러지고 공정은 왜곡되는데 왜 하느님은 바라보고만 계시는지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사납고 격렬한 민족 칼데아인들"(하바 1,6), 곧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통해 악인을 벌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신바빌로니아 제국 군대의 폭력 앞에서 하바쿡은 다시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유다를 벌하기 위하여 더 악한 제국의 군대를 끌어들이시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따져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악인은 제 악으로 멸망하고 말리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바쿡 3장은 '하바쿡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느님께 불평했던 예언자의 기도 체험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당신의 힘과 권능을 떨치시며 오시는 놀라우신 하느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길만이 영원하다는 것을.(3,6 참조)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힘이 당장에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 역시 한 때일 뿐이며, 스러져 갈 힘에 불과합니다.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기름부음받은이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 하느님에 의해 그들은 파멸되고 말 것임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공격하는 백성에게 들이닥칠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겠노라고 말합니다.(3,16 참조)

그의 현실은 전쟁으로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올리브나무에도 딸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 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손실된 상황이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3,18)고 말합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그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느님께로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들이 즐비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의 상황은 하바쿡이 고백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바쿡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힘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희망하기를 멈추지 않은 하바쿡 예언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절망과 좌절에 이르는 길은 크고 넓지만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이들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고통에 대한 연대와 나눔, 격려와 지지는 더 많은 이들이 희망의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루카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 과정이 묘사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1,28)라고 인사합니다. 당시 일반적 인사는 ‘샬롬’(shalom, 평화가 너와 함께!)인데, 이례적으로 그리스식 인사말인 ‘카이레’(chaire, 기뻐하여라)라 인사합니다. ‘카이레’는 라틴어 ‘아베’(Ave)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탄생 순간 천사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는 구약의 스바니아서 3,14-17을 인용한 것입니다. “딸 시온아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 너의 하느님,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 ‘시온’ 혹은 ‘시온의 딸’은 ‘계약의 궤’를 모신 장소이자 동시에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한가운데’ 계시기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적용됩니다. 마리아의 모태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니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탄생 예고를 통해 마리아는 시온의 딸, 즉 주님이 계시는 ‘계약의 궤’가 되고, 마리아가 하느님 약속이 실현되는 백성이 됩니다. ‘기쁨’(chaire)과 ‘은총’(charisma 카리스마)은 어원이 같은 단어인데, 기쁨과 은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이’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알려줍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루카 1,31) ‘예수’의 원래 발음은 ‘예슈아’(Yeshua)나 ‘예슈’인데, 이를 그리스어화해서 라틴어식으로 표기한 것이 ‘예수’(Jesus)입니다. 이는 당시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여호수아’나 ‘호세아’와 어원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즉, ‘예수’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탈출기 3장에 모세를 통해 계시된 하느님 이름이 ‘야훼’(JHWH)인데, 이 이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시나이산에서 알려진 하느님 이름은 이후 구약의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이라 알려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결정적인 풀이이자 완성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이름 계시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총과 구원을 얻고 싶다면,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길, 진리,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자 하느님이신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하느님 말씀 안에,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0,9)

뉴스레터팀이 전.하.는 WYD 소식

World Youth Day

내용 구성 | 2027서울WYD 뉴스레터팀
카카오톡 채널 @wydseoul2027

아시아에 퍼지고 있는 WYD의 열기!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 소식

2025년 4월 16일(수)

지난 3월,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아시아 순례의 첫 여정지인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지는 방글라데시의 4개 교구(다카대교구, 디냐즈프루교구, 라즈샤히교구, 치타공대교구)였습니다. 십자가와 성화는 각 교구의 주교좌 성당과 본당, 학교, 수도원을 순례했으며, 젊은이들과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성주간 수요일인 4월 16일,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맞춰 젊은이들과 WYD 봉사자, 신자들이 모여 '십자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랜 여정을 마친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기도와 묵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이제 일본, 필리핀, 대만으로 순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를 더 내려두고, 하느님께 더 기대며 '주님을 위한 24시간'

2025년 3월 28일(금)

지난 3월 28일,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주님을 위한 24시간'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4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양심성찰, 고해성사, 봉헌과 성체 강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청년들은 하느님과 화해를 갈망하며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앞에서 '십계명 양심 성찰'을 통해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이날 고해성사는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 그리고 산책 형식으로도 진행되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이다 보니, 더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많은 청년들이 산책 고해성사를 찾았다는 후문입니다.

지구별 청년 공동체 미사 및 주교님과 대화 시간의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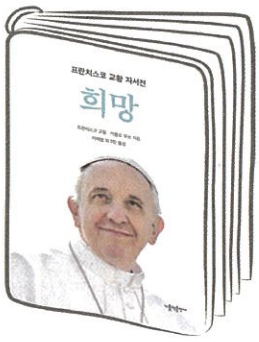
2025년 3월 30일(주일)

2024년 10월 6일 제14 동작지구 흑석동성당에서 시작된 지구 공동체 미사가 지난 4월 6일 등촌1동성당에서 진행된 제17 강서지구 공동체 미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WYD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신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께서는 이번 지구 공동체 미사를 통해 6개월간 6,000명이 넘는 청년을 만나며,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교님께서는 미사 후 토크 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청년의 고민을 듣는 시간에도 함께하셨습니다. 각박한 현실을 버티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진솔한 조언을 전달하며 참석자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쫄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직접 준비하신 '쫄지마♡' 열쇠고리를 나누어, 청년 참석자들이 현실의 두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신앙을 통해 두려움에 맞서고 하느님께 다가갈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도서 《희망》

신학생 시절, 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 신부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부님이 독일 뮌헨에서 유학 중이셨을 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미국발 경제 위기로 독일 사회도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상세히 진단하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국영방송을 통해 일주일에 한 차례씩 방영되었습니다. 총 4주에 걸쳐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각 주마다 각계 전문가 한 명이 출연하여 자신이 몸담은 분야의 시각으로 당시의 경제 위기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첫 주 차에는 애널리스트가, 둘째 주 차에는 경제학 박사가, 셋째 주 차에는 심리학자가 출연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차에는 놀랍게도 당시의 뮌헨교구 대주교님께서 출연하여 영적인 맥락에서 경제 위기 상황을 분석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세속화가 심화되고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독일 사회가, 그럼에도 결정적인 사회문제를 두고서 최후의 조언을 교회에서 듣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사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을 통해, 영향력이나 유명세, 외적인 규모와 같은 부분을 두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아마도 신부님은, 세속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세간의 눈길을 끄는 교회나 지극히 개인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성직자의 모습보다는 시대적 징표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스스로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교회와 성직자들의 모습이, 희망이 희미해진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찾게 한다는 점을 후배들에게 일깨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서전 《희망》의 원제목은 '희망하라'는 의미의 라틴어 'Spera'입니다. 교황님이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일깨우시고자 했던 희망은 '어떻게든 괜찮아지겠지.'라는 식의 '낙관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은 괜찮지 않다고 드러나는 것들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현실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희망적이지 못한 상황을 버티고 견디면서, 가능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마냥 다소곳이 희망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교황님은 희망을 사치처럼 여기거나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 시대를 향해 "지금 당장 희망하라!"고 명령하듯 외치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희망을 품기 어려운 시기에 독일 사회가 교회를 최후의 보루로 여긴 모습은 자서전 《희망》에 담긴 "희망하라."는 교황님의 제언과 맞물려 작금의 교회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의 징표처럼 다가옵니다.

안미옥 시인은 희망을 '모서리가 깨진 서랍장을 이사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낡고 부질없다 치부해 버린 '희망'을 끝까지 품으며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온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5월 11일)은 '부활 제4주일'로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 계발과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성소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 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탁현수(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선종

우리 교구 소속 탁현수(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 지난 4월 24일(목)에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942년 강원도 홍천군에서 출생하여 1973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제기동·도림동·혜화동·중림동(현 중림동 약현), 일산(현 의정부교구)·잠원동·서대문·답십리·마석(현 의정부교구)·수색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04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2025년 4월 29일(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셨습니다.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에서만 받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 14일 이계선 레오 신부(61세)
- 2008년 5월 12일 장대익 루도비코 신부(85세)
- 2024년 5월 18일 김희선 요셉 신부(94세)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교구청 알림

장애인의 희년–교구장님과 함께하는 미사
때, 곳: 5월 25일(주일) 14시30분, 명동대성당 대성전
집전: 정순택 대주교 /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가능
문의(주관):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슬픔 속 희망찾기' 5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때, 곳: 5월 17일(토) 10시(자비의 기도) ·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6월 13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073(www.hospitalpastoralcommittee.co.kr)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 1일(목)~23일(금)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 · 4호선 서울역, 2 · 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앙상블	그레고리오성가 · 성악(남 · 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야외미사
5월 12일 월례미사는 야외미사로 진행되어 명동가톨릭회관에서 미사가 없습니다 / **문의:** 010-3732-5093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6월 30일~7월 11일(11박 12일) / **지도:** 전영준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데레사

1464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5월 1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서울대교구(북녘지역) 은율 본당 / **문의:** 02)727-2420

2025 토요 성모신심 미사와 20단 묵주기도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명동)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순교자현양위원회 미사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47회)
때, 곳: 5월 13일(화) 오전 10시, 절두산순교성지
2)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미사
때, 곳: 5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문의:** 02)2269-0413
집전: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교구 주교 및 사제단

5월 생명위원회 미사 안내
1)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5월 12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
때, 곳: 5월 13일(화) 13시30분~16시30분,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5/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 문의: 02)727-2047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접수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성경-고통은 왜?): 5월 15일~6월 1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6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도경 개인전: 1전시실
가톨릭 스테인드글라스회 특별전: 2전시실
최민정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 9일(금)~18일(주일)

우리농 활동가 연례연수 봄강좌
대상: 서울 우리농 각 본당 생활공동체 활동가, 우리농 회원, 관심있는 신자
때, 곳: 5월 13일~27일 매주(화) 오전 10시, 교구청 5층 501호 / **주제:**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농 활동가
회비: 4만원(우리은행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 **문의(신청):** 02)727-2275

환경사목위원회
1)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10주년 특별 강연
주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회칙 〈찬미받으소서〉
때, 곳: 5월 13일(화) 오후 7시~9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강사:** 아우구스토 잠피니-데이브스 신부(전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촉진부 차관보, 아르헨티나 신부)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및 전화 접수(02-727-2278, 2283)
2) 제74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때, 곳: 5월 15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곽영신 수녀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강의, 안수

도서출판 성서와함께 '기도를 그리다' 그림 피정
때: 5월 17일(토) 14시~17시30분(미사 있음)
곳: 정릉성모교육원 / 이끎이: 배영길 신부(예수회)
회비: 5천원 / 문의: 02)822-0127(www.withbible.com)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추자도포함 제주전체 성지순례** 6월 21일~23일·7월 1일~4일·9월 7일~10일·9월 18일~21일·10월 25일~28일, **자연순례** 5월 21일~23일(성모의밤)·6월 12일~14일, **제주섬 우도 포함** 7월 18일~20일·7월22일~24일(차귀도)·7월 26일~29일·8월 1일~3일·8월 7일~9일·8월 11일~13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5월 13일	이상기 회장	5월 20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지리산 피아골·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7월 18일~19일, 9월 19일~20일, 11월 21일~22일
전국성지순례 원주·춘천	6월 13일~14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31)321-9060, 010-4154-0885

2박3일	5월 23일(금)~25일(주일), 8월 1일(금)~3일(주일)
8박9일	8월 6일(수)~14일(목)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65세 이상)	5월 19일(월)~28일(수)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6월 13일~15일, 7월 11일~13일
품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수시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6월 6일 10시~15시30분
토요성모신심 기도와 미사	5월 17일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	6월 27일~29일(2박3일)
수요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묵주 기도와 영신수련 피정
강사: 이한택 주교 / 문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때, 곳: 5월 26일 10시~13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마진우 신부(대구교구 초전성당 주임)
때, 곳: 5월 21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5월 도심 속에 하루 피정 '쉼'
자연-스스로 그러하다. 있는 존재 그대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때: 5월 31일(토) 10시~17시 / www.jj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8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미사(전국 행사)
때, 곳: 5월 13일(월) 10시~16시(미사 14시), 파티마 평화의 성당(임진각 파주) / 출발: 9시, 가톨릭회관(명동)
버스표 판매: 좌석당 1만8천원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2025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대피정
때, 곳: 5월 24일(토) 9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혜화동) / 문의: 02)727-2489, 010-3136-7869
주제: "희망에 너희 마음을 열어라"(메시지 604번)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 강의: 전진 신부(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수도회, 우이동 명상의 집 원장)
주최: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 음악원(주최, 신촌)

원어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헬라어)
때: 7월부터 12개월, (수) 19시30분~21시30분
방법: Zoom / 회비: 30만원씩 4회(총 12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작은형제회)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서강대학교 '거룩한 만남의 순간들'
주제: 마리아상과 검은 성모님
강사: 김산춘 신부(예수회) / 문의: 02)705-4711
때: 5월 19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냐시오 소강당 / 회비 없음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5월 27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30분(6주)
곳: 한국CLC 강의실·온라인 Zoom
5월 22일까지 접수 / 문의: 02)2135-9398 한국CLC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25년 후기 신·편입생 모집
학과: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노인복지, 정신건강복지 / 접수: 5월 11일(주일)까지
곳: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 서울성모병원 내)
문의: 02)3147-8781 / 홈페이지(gsocialwelfare.ac.kr) 참조

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문의: 010-5234-5044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원서접수: 5월 11일(주일)까지
면접: 5월 30일(금) / 문의: 02)2164-4176, 4787, 4173
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참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서
내용: 진정한 자기를 이해하고 나의 정체성과 자신의 고유한 영성을 발견·견고하게 하여 프란치스칸 영성을 살게함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때: 5월 30일(금)·31일(토) 9시30분~17시30분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15만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월 21일(수)~30일(금) / 전형일: 6월 14일(토)
모집전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 문의: 02)705-8668, 9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신(편)입생 모집
개강: 9월 1일 /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접수
전형: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포트폴리오+면접), 게임개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면접)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문의: 02)705-8678(www.soganggame.ac.kr)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10-8477-6688
내용: 인문독서(6주) /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 회비: 10만원
때: 5월 22일부터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주최: 한국가톨릭독서모임(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트넘·서유럽투어)

모집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2633-2025
오디션: 5월 18일(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대건챔버콰이어 2025년 연주단원 모집
잊혀진 거장 Zelenka 연주시리즈 7
Requiem(ZWV 46) / Missa Paschalis(ZWV 7)
오디션일정 개별 안내 / 문의: 010-6356-3347
지정곡: Missa Paschalis 'Gloria'(1-57마디)
악보는 대건챔버콰이어 카페 공지사항에서 출력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5월 15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5월 15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글라렛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5월 19일(월) 11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군종후원회 월례미사·특강
특강: 최혁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5월 12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5월 16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본원 성당(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5월 26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주제: 성모 성월 맞이 피정
내용: 특강,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5월 19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안내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은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생리주기 변화를 기반으로 한 원인분석-진단-치료의 과학적 가임력 관리로 건강한 자연임신을 돕는 방법입니다 / 문의(예약): 1661-7575
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2급 5만원), 놀이치료 6만원
문의: 02)3147-8814(gcounseling-center.catholic.ac.kr)

2025년 춘천평화음악제 무료 초대
때, 곳: 5월 17일(토) 15시, 춘천 KT&G상상마당 야외공연장 / 행사문의: 010-5245-2848 심준보 사무국장(가톨릭평화연구소·모니카교회음악원)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싹숨남성합창단, 대철하모니카 합주단, 강릉임당동성가대, 소프라노 민은홍 등 출연

바보나눔터와 함께 사랑을 전하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나눔을 이어가고 싶은 가게, 식당, 병원, 학원 등 중소상공업체라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김수환 추기경님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문의: 02)727-2506, 7 바보의나눔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국가지원 전문심리상담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유관단체 알림

사목자활성가 양성연수(CAFE) 개최
주제: 청소년 사목의 기초와 핵심 / 회비: 30만원
대상: 사제, 수도자, 청소년분과, 자모회대표, 교리교사
때, 곳: 6월 16일(월)~18일(수), 복자사랑 피정의 집
선착순 40명 접수 /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직원모집

(재)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디자인 담당 1명 / 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홈페이지(www.wydseoul.org) 공지 참조 / 이메일 문의
5월 31일까지 이메일(seoul2027@wydseoul.org) 접수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공개채용(신입)
분야: OTT운영, 편집기자, 광고마케팅, 방송경영, 아카이브 / 홈페이지(www.cpbc.co.kr) 참조
5월 11일까지 접수 / 문의: 02)227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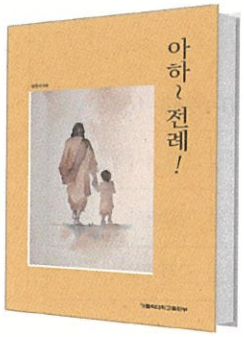
공릉동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관리장(계약직 방호원)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교우로 방화관리 및 시설물관리 자격증,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소방·전기·설비 유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이메일 문의
5월 18일(주일)까지 우편·방문(우 0184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92길 57 공릉동성당) 및 이메일(emo@seoul.catholic.kr)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편집국	전문 편집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사랑의 씨튼 수녀회	5월 17일(토) 14시~17시	카라의 뜰(전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수도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5월 17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예수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수도원(서울)	010-7485-1964
예수의 성모 여자 수도회	셋째주(주일) 5월 18일 14시	가톨릭회관 207호 마리아성물센터	010-2910-4825 이 골롬바 수녀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전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월 17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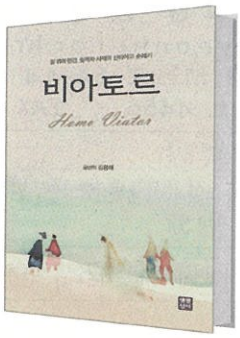


신간

아하~ 전례!

윤종식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12쪽 | 2만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전례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는 책으로, 전례의 개념, 상징, 공간, 미사 전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인 전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신학생과 수도자는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우들에게 전례 교육의 유익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신간

길 위의 인간, 철학자 사제의 산티아고 순례기

비아토르

김용해 지음
생활성서사 | 176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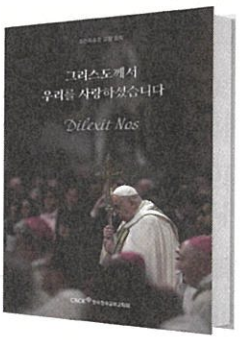
예수회 사제이자 철학 교수인 저자가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으며 그 길 위에서 만난 자연과 사람,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산티아고 순례기다. 화려한 사진 없이 진솔한 글로 순례의 감동을 전하며, 인간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전한다.

신간

성인이요 죄인이 바치는 기도

폴 브렌든 머레이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28쪽 | 8천원
문의: 02)460-7582~3

2025년 정기 희년을 준비하며 교황청 복음화부는 기도에 관한 소책자 여덟 권을 발간하였다. 그중 제4권 《성인이요 죄인이 바치는 기도》는 교회 학자 네 성인의 저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성인들의 기도 모범 안에서 겸손과 희망, 용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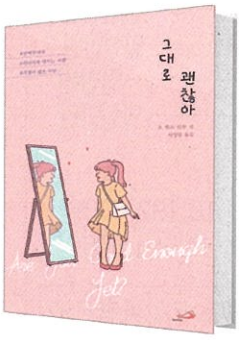


신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60쪽 | 8천원
문의: 02)460-7582~3

프란치스코 교황의 네 번째 회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 안에 담긴 인간적이고 신적인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마음(심장)이라는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자주 사용되었는데, 교황께서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 법을 배우도록 초대하신다.



신간

그래도 괜찮아

조켐프 지음
성바오로 | 176쪽 | 1만3천원
문의: 010-2572-1365

가슴속에 불안의 웅덩이 같은 것 없이, 평화와 안정감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자기 모습이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으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확신하도록 도와준다.

공연

신청 큐알(QR) 스캔

연분홍 봄날

때, 곳: 5월 17일(토)~18일(주일) 15시 · 19시, 청년문화공간JU 다리소극장 / 전석 무료
문의: 010-7701-7138

우리들 인생의 꽃 같은 순간들 연극 <연분홍 봄날>이 5월 17일(토)~18일(주일), 청년문화공간JU 다리소극장에서 열린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쉬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우연히 낯선 누군가를 만나,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도 한다. 소중했던 누군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볼 수 있는 따뜻한 연극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 좌 신 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희년 맞이 연희동성당 바자회
희년을 맞이하여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은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의 삶에 따뜻한 손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일시 : 5월 18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 성당 마당 및 교육관
• 쿠폰 판매 장소 : 주일(성당마당) / 평일(사무실)
• 후원 단체 : ① 이주여성그룹홈 ② 한사랑공동체 ③바오로교실(장애인 보호작업장·주간보호시설)

※ 5월 18일(주일)은 오전 7시, 9시, 오후 6시미사가 봉헌되며, 9시 미사가 교중미사로 봉헌됩니다.

※ 5월 18일(주일) 중고등부·반디미사는 17일(토) 15시 주일학교 통합미사로 봉헌됩니다.

※ 바자회 기증 물품 접수는 오늘(5/11)까지 입니다.

※ 바자회 텐트 설치로 5월 17일(토) 오후 4시부터 18일(주일)까지 주차가 불가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5월 20일(화) 오전 10시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5월 23일(금) 오전 10시 출발

◉ 바오로 시니어대학 봄 소풍
• 일시 : 5월 16일(금) 오전 8시 성당 출발
• 장소 : 횡성 풍수원성당

◉ 여성 구반장 야외행사
• 일시 : 5월 20일(화) 오전 8시 성당 출발
• 장소 : 청평사

◉ 남성울뜨레야
• 일시 : 5월 2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뜨레야
• 일시 : 5월 27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오라떼 음악회
• 일시 : 5월 31일(토) 오후 4시 30분 / 대성전
※ 5월 31일(토) 오후 3시 초등부미사는 소성전에서 봉헌되고, 오후 6시 특전미사는 없습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 가족 운동회
• 일시 : 6월 7일(토) 12시 ~ 오후 5시
• 장소 :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체육관
• 준비물 : 개인 텀블러, 운동화
※ 점심 미제공, 체육관 내 간식 금지
※ 당일 초등부 미사는 체육관에서 봉헌됩니다.

◉ 오늘은 성소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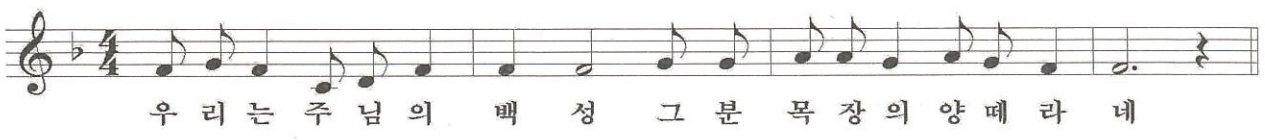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5. 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9	646 (32.1%)	600 (29.8%)	42.9%	41.6%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길영희 안나 상가 ····· 삼십만원

◉ 감사헌금 (4월 28일 ~ 5월 4일)
이하정 ····· 오천원 곽선모 ····· 오천원
박승복 ····· 오십만원 장순복 ····· 일십만원
임종명 ····· 일십만원 강병숙 ····· 일십만원
함영동 ····· 일만원
재속가르멜회십자가성요한 ·····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3주일)
교 무 금 ····· 10,192,000원
주일헌금 ····· 4,954,000원

입당	55	봉헌	218, 221	성체	174, 173, 503	파견	132